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시각화 경진대회

공공도서관은 개인들의 평등한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가?

Team COSADAMA : 김가인 송혜민 안지은

주제 : 공공도서관은 개인들의 평등한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주제선정 이유 및 배경 & 필요성

본 연구는 개인들의 평등한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공공도서관의 위치성에 관해 조명해보고, 평등한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구축과 소득 간의 상관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을 이론적 바탕으로 둔다. 문화자본이란 각 개인이 지닌 상이한 문화적 취향 혹은 습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화적 다름의 문제가 계급 관계를 바탕으로 재생산에 일조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둔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자본 역시 경제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전유될 수 있으며, 해당 문화를 소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계급에게 실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계급을 재생산하는 간접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 기제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이승민)(2018)에서 제기된 문화자본의 재생산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위치성에 관해 조명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사회적, 경제적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문화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전체적 문화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특히 공공도서관의 문화자원 제공은 하위계급의 문화활동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계급화를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18년 연구한 내용을 담은 한 논문에 따르면,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급일수록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계급화의 해소에는 부분적인 영향만을 끼쳤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공공도서관이 진정으로 개인들의 평등한 문화생활 향유를 보장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 기제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이승민)(2018)에서 제기된 문화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위치성, 그리고 계급이라는 주제에 대한 물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며, 그를 통해 해당 주제와 관련한 탐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통합적 인프라의 수준이 높은 공공도서관일수록 어린이,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프라도 비례하는 수치를 보이는지, 또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수준과 소득과의 연관성이 어떠한지라는 2가지의 가설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범위를 서울시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2. 분석 개요 및 활용 데이터 소개

본 분석은 위의 주제를 바탕으로 서울 시 구별 도서관 인프라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각 지역구별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의 장서 기준 준수 도서관 수, 총 도서관 수, 연면적, 좌석 수를 비교해보고, 이것들을 종합한 값을 활용해 소득과 이용 정도와 같은 요소들의 상관관계 분석 시 사용한다. 구별 어린이/노인 이용자를 위한 인프라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좌석 수, 어린이/노인 대상 이용자 교육 예산을 비교해보고, 위와 마찬가지로 이를 종합하여 도출한 값과 다른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기본적인 인프라 수준이 어린이/노인을 위한 인프라의 수준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다음은 각 항목별 사용한 데이터이다.

#지역구별 도서관 인프라 확인

-2020년도 도서관 이용시설 현황 데이터(publiclibFacility.xlsx)

-2018년~2020년도 서울시 관내 공공도서관 장서 데이터(publicCollection2018to2020raw.xlsx)

-2020년도 서울시 관내 도서관 예산 데이터(publiclibBudget2018to2020.xlsx)

#(어린이/노인 이용자의 이용정도 및 인프라) & (전체 이용자의 이용정도) 파악

-도서관 이용시설 현황 데이터(publiclibFacility.xlsx)

-도서관 내 취약계층 서비스 현황 데이터(publiclibVulnerableClasses2018to2020.xlsx)

-도서관 내 어린이 서비스 현황 데이터(publiclibChildren2018to2020.xlsx)

-도서관 대출 데이터(publiclibLending2018to2020.xlsx)

#도서관의 인프라 수준과 소득 수준 간의 관계 파악

-소득 데이터(BIZCELL 소득신용통계정보)

#인구 통계 정보 활용

-kosis의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데이터(서울시 구 단위/2019, 2020년) 가공 후 사용 (pop data.csv)

3. 전체 도서관 인프라 살펴보기

도서관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도서관법 시행령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1항에서는 별표로 서관 자료와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지역 구민에게 충분히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도서관 전반의 인프라를 논할 때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다.

도서관의 인프라는 예산 금액 자체와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출항목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은 장서 관리 및 계획 단계 뿐만 아니라 전 도서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추가자료3-1]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 각 구의 도서관은 총예산이 규모와 운영비의 비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입수되는 도서의 양이 반드시 정확한 비율로 총 예산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산 규모가 큰 도서관은 도서관의 물리적 규모도 크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 관내 도서관은 법적으로 지정한 최저 장서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 각 구별 예산 분배 현황 및 예산 배정 비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2에서는 각 구별로 예산 총액 평균을 살펴보고, 각 구별로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2019 공공도서관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예산 배정 비율을 준수하는 도서관의 수를 확인해볼 예정이다.

구별 도서관의 수, 연면적, 좌석 수, 열람석 수는 자료의 수용 능력과 이용자 수용 규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 주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초기 건립 시 투입되는 자원 규모가 매우 큰 만큼, 구 자체의 예산 규모, 도서관 분야로 배정되는 비율, 정책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3-4에서는 이용 정도와 도서관 인프라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규모에 따른 이용 양상을 추측해보도록 한다.

각 구별 평균 소득은 차이를 보이며, 이는 단순히 지역구의 예산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소득과 학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학력은 곧 정보의 습득 및 활용 능력에 직접적인 차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지역별 연소득 차이는 곧 이용자들의 도서관 활용 양상에도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더욱 자주 도서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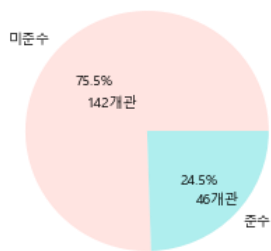
구에서도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맞춰 도서관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개별 도서관에서도 수요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3-4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소득과 앞서 언급했던 도서관 인프라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법적 장서 기준 준수 여부

아래는 도서관법 시행령이 제시하고 있는 장서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이다. 시설의 경우, 뒤의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건너뛰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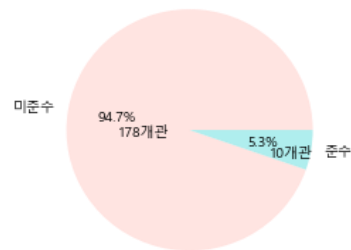
[그림3-1]

도서관법 장서기준 준수여부 비율(도서)



[그림3-2]

도서관법 장서기준 준수여부 비율(시청각/연속간행물)



도서 자료의 경우 188개 관 중, 오직 46개 도서관만이 장서 기준을 준수하였다. 시청각 및 연속간행물 자료의 경우는 10개 도서관만이 장서 기준을 준수한다. 시청각 및 연속간행물 자료의 경우, 이를 준수하는 도서관의 수가 너무 적어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이후에는 오직 도서 자료의 준수 여부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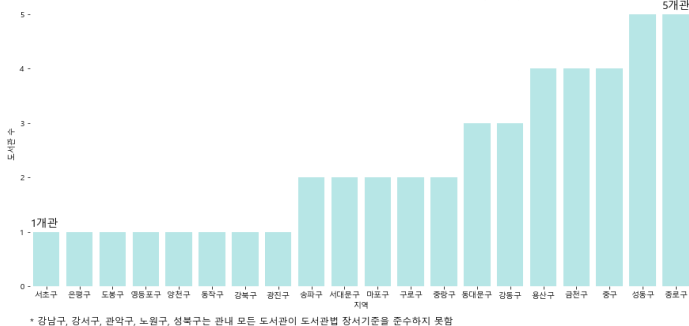
◀[그림3-3]

[그림3-3]은 2020년 기준 구별 도서관법 장서기준 준수 도서관의 수를 구한 것이다. 종로구, 성동구가 총 5개 관으로 가장 많은 도서관이 장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는 관내의 어느 도서관도 장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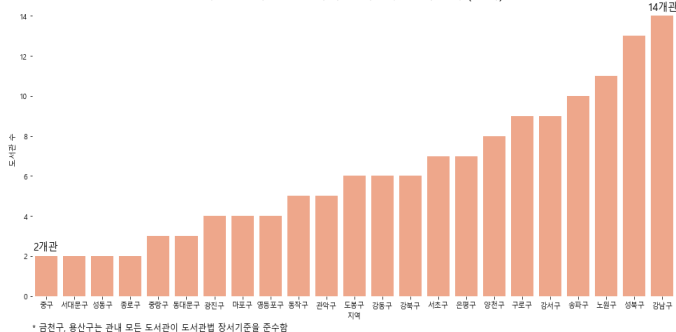
◀[그림3-4]

[그림3-4]는 구별 도서관법 장서기준 미준수 도서관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장서 기준을 준수하는 도서관이 없었던 강남구, 성북구, 노원구는 10개관 이상이 장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남구, 성북구, 노원구의 경우 관내 도서관 수 자체는 많으나, 개별 도서관의 자료 수 자체는 봉사 대상 인구 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구별 도서관법 장서기준 준수 도서관 수(도서)



구별 도서관법 장서기준 미준수 도서관 수(도서)



있다. 용산구나 금천구는 도서관 수 자체는 많은 편이 아니나,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이 장서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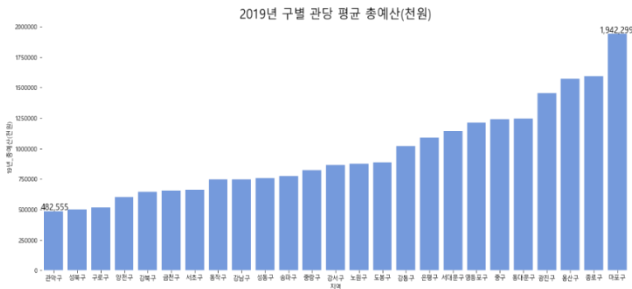
강남구, 성북구, 노원구는 장서기준 미달 도서관이 10개가 넘어가나, 장서기준을 만족하는 도서관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즉, 구별 도서관 수가 많을수록 장서 기준을 준수하는 도서관은 적어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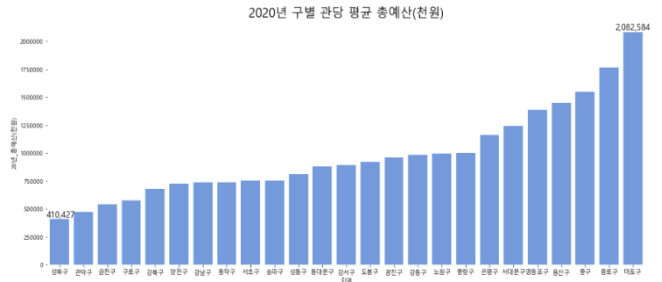
3-2. 도서관 총 예산과 각 2019년판 한국 도서관 관리 매뉴얼 지출 항목별 예산 배정 비율 준수 여부

먼저 구별 평균 도서관 예산과 구 전체 도서 예산 총합에 평균적으로 개별 도서관의 전체 구 도서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 금액의 비율을 구했다. (구별 평균 도서관 예산/구별 도서관 예산 총합)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유행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에도 큰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예산 순위를 각각 살펴보고, 예산의 증감에도 구별로 차이가 있을지 확인하였다.

[그림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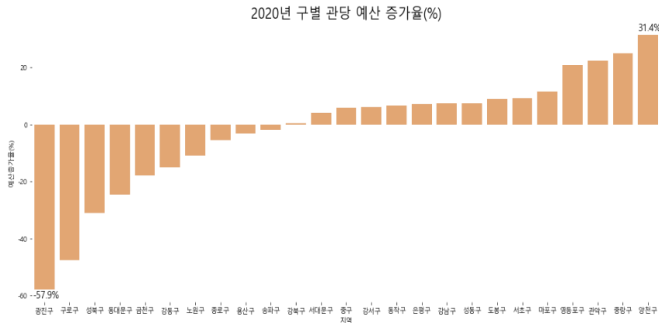
[그림3-6]



[그림3-5]와 [그림3-6]은 각각 2019년, 2020년도의 구별 평균 총 예산 금액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마포구나 종로구는 각각 1위, 2위로 그 순위가 2019년이나 2020년 모두 변화가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예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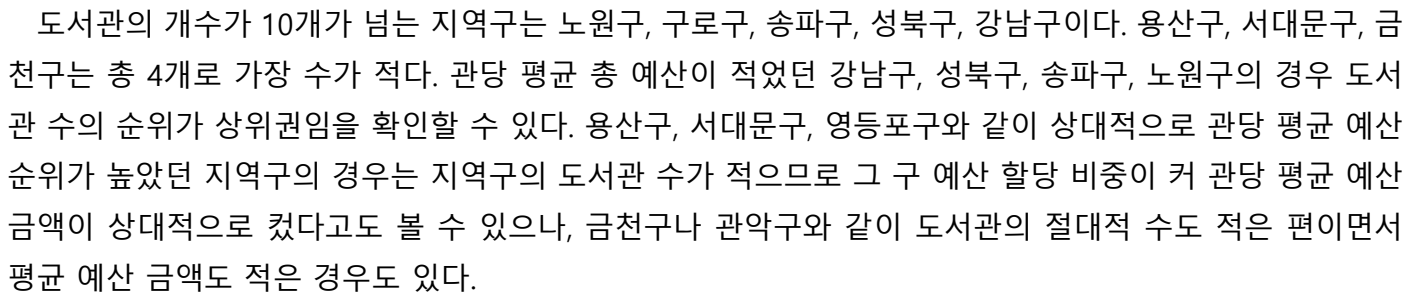
[그림3-7]의 구별 관당 예산 증가율을 보면, 양천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2020년도에 예산순위가 하락한 용산구의 경우에도 증가율에선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한편, 관악구의 경우 매우 높은 감소율을 보인다. 관악구의 경우, 2019, 2020년도의 예산 순위는 낮으나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다. 이에 반해 관악구와 비슷한 수준에 있던 구로구, 성북구의 경우 오히려 2020년도에도 예산이 감소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율과 총 예산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했을 때, 거의 무의미한 값이 도출되었으므로, 총 예산의 많고 적음과 19-20년도의 예산 변동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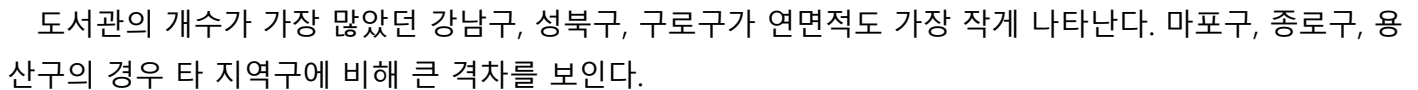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총 예산의 규모와 자료구입비의 비율은 음의 상관관계이며, 총 예산 규모와 운영비는 양의 상관관계임을 확인했다.¹ 매뉴얼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자료구입비는 15~20%, 인건비는 45~55%, 기타 운영비는 25~35%가 적당한 배정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도서관은 마포구와 종로구에 각 1관씩 총 2개관밖에 없어서 지역별 비교나 분석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을 보면, 사실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배정 비율이 책정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한의 기본 장서 조건조차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의 상황을 유연히 적용할 수 있으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예산 배정 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¹ 2020년도 총 예산과 자료구입비 비율의 상관관계, 2020년도 총 예산과 운영비 비율의 상관관계는 추가자료에서 확인 가능([추가그림3-1],[추가그림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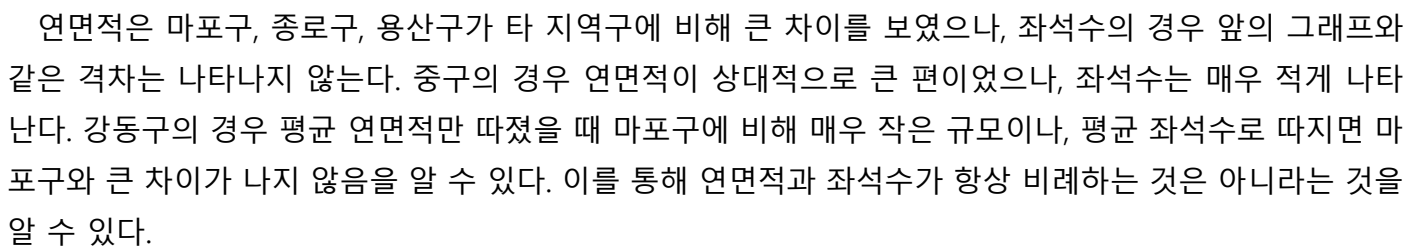
[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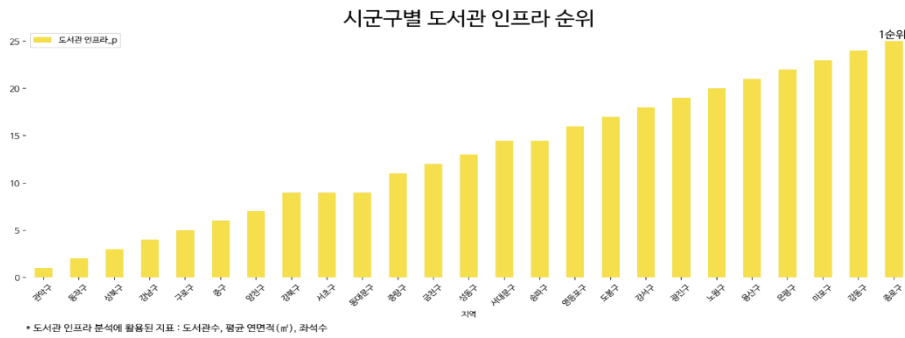
[그림 3-9]



[그림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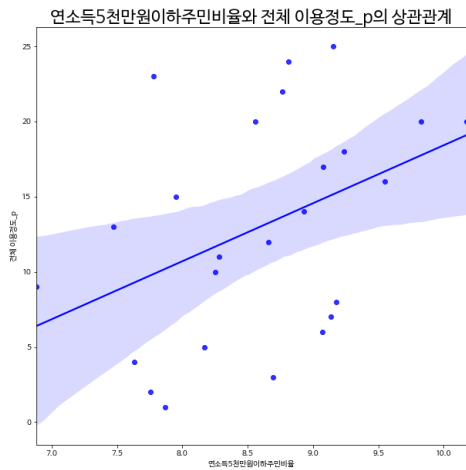
[그림3-11]



[그림3-11]은 앞에서 그래프로 나타내었던 도서관 수, 평균 연면적, 좌석 수 순위를 종합하여 다시 수치화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용산구의 경우 좌석수와 연면적 순위는 높았으나, 종합적인 순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좌석수, 연면적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은평구보다 더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3-4. 소득과 전체 이용정도 간의 상관관계

[그림3-12]²



전체 이용정도³의 경우, 소득이 적은 주민의 비율이 높을수록(즉, 소득이 적은 주민이 많을수록) 약한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득이 많은 주민의 비율이 높을수록(즉, 소득이 많은 주민이 많을수록) 약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허나 ‘약한 수준’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소득 데이터 중 전체 이용정도와 가장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연소득 5천만원이하주민비율’로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는 [그림3-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소득과 도서관 인프라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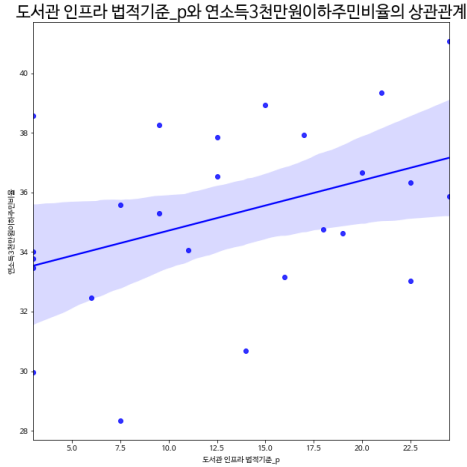
- ‘법적 장서기준 준수 여부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주민의 비율이 높을수록(즉, 소득이 적은 주민이 많을수록) 약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득이 많은 주민의 비율이 높을수록(즉, 소득이 많은 주민이 많을수록) 약한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허나 ‘약한 수준’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소득 데이터 중 법적 장서기준 준수 여부와 가장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연소득 3천만원이하주민비율’로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는 [그림3-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소득 데이터 중 법적 장서기준 준수 여부와 가장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주민비율’과 법적 장서기준 준수 여부의 상관관계는 [그림3-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² 범주에 써 있는 ‘p’의 의미는 point의 약자로, p의 수치가 클수록 순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본 보고서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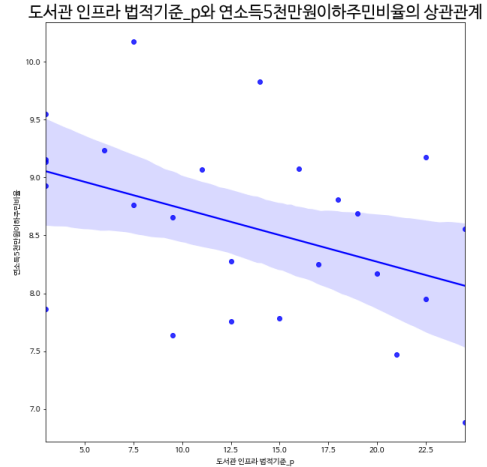
³ ‘인구수 대비 총 대출자수(%)’, ‘총 대출권수(1인당 권수)’,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인구수 대비 총 대출자수(%) 증감’,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총 대출권수(1인당 권수) 증감’을 지표로 설정하여 시군구별로 순위를 매긴 데이터.

⁴ ‘장서기준준수 도서관 수’와 ‘장서기준준수 도서관 비율’을 지표로 설정하여 시군구별로 순위를 매긴 데이터로, 후자의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후자의 항목은 한 번 더 반복 입력하여 가중치를 주어 순위를 매겼음.

[그림3-13] ⁵



[그림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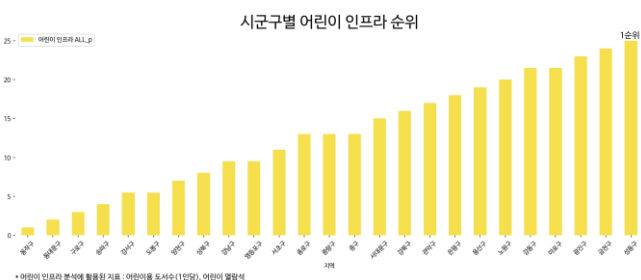
- '도서관 인프라⁶'의 경우, 소득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더불어 법적 장서기준 준수 여부와 도서관 인프라를 합친 통합 도서관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소득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4. 어린이/노인 인프라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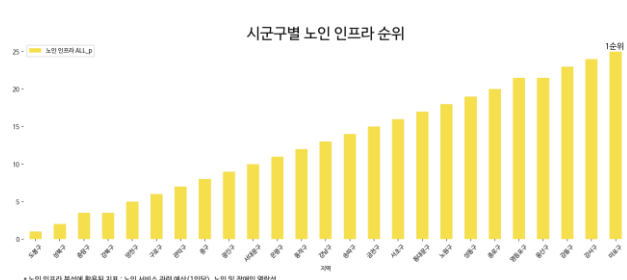
도서관이 평등한 정보접근을 보장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도 해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무리 도서관 수를 확충하고 충분한 자료를 소장한다 하더라도, 어린이 및 노약자도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서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 열람석, 노약자 전용 열람석과 같은 시설물을 갖춰야 한다. 4에서는 어린이/노인 좌석 수, 어린이/노인 대상 프로그램 예산을 종합하여 이들을 위한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4-1에서는 노인과 어린이 이용자의 대출자 수(어린이만), 이용자 수로 도출한 이용정도 순위를 알아보고, 앞서 구한 노인/어린이 인프라 지표와 이용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소득과 이용정도에 관계가 있는지 4-2에서 알아보고, 4-3에서는 소득과 인프라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그림4-1]⁷



[그림4-2]⁸



⁵ 법적 장서기준 준수 여부 데이터와 동일. 상세한 설명은 각주4 참고.

⁶ 법적 장서기준 준수 여부를 제외한 여타 시설물(도서관 수, 평균 연면적, 좌석수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시군구별로 순위를 매긴 데이터.

⁷ -'어린이용 도서관(1인당)', '어린이 열람석'을 지표로 설정하여 시군구별로 순위를 매긴 데이터.

-범주에 써 있는 'ALL'의 의미는, 여러 데이터를 통합하였다는 의미로, 그래프 하단에 여러 요소들을 합(+)해서 구해진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2019년도와 2020년의 데이터를 합쳤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p'와 마찬가지로, 본 보고서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⁸ '노인 서비스 관련 예산(1인당)',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을 지표로 설정하여 시군구별로 순위를 매긴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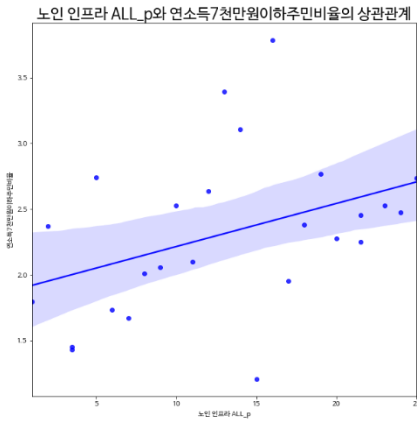
4-2. 소득과 이용정도 간의 상관관계

‘어린이의 도서관 이용정도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 ‘노인의 도서관 이용정도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해본 결과, 무의미한 상관관계로 도출되었다.

4-3. 소득과 인프라 간의 상관관계

- ‘어린이 인프라’의 경우, 소득과는 무의미한 상관관계로 도출되었다.

[그림4-5]



- ‘노인 인프라’의 경우, 소득이 적은 주민의 비율이 높을수록(즉, 소득이 적은 주민이 많을수록) 약한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득이 많은 주민의 비율이 높을수록(즉, 소득이 많은 주민이 많을수록) 약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허나 ‘약한 수준’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소득 데이터 중 노인 인프라와 가장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연소득 7천만원이하주민비율’로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는 [그림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인프라 간의 상관관계 살펴보기

규모가 있는 도서관에 간다면 노약자를 위한 좌석과 독서 지원 기기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서관은 노약자 이용자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개선 중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규모가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만 보인다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5에서는 어린이/노인의 인프라 요소들이 3에서 다뤘던 인프라 요소들(도서관 수, 연면적, 좌석 수)의 수준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노인 인프라와 어린이 인프라 모두 도서관 인프라와 약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린이 인프라보다는 노인 인프라가 조금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법적 장서기준 준수 여부의 경우, 모든 인프라와 무의미한 상관관계로 도출되었기에, 법적 장서기준 준수 여부 보다는 도서관 인프라와 어린이 인프라, 노인 인프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위치성, 그리고 계급이라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통합적 인프라의 수준이 높은 공공도서관일수록 어린이,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프라도 비례하는 수치를 보이는지, 또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수준과 소득과의 연관성이 어떠한지라는 2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소득과 도서관 인프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노인/어린이에 대한 인프라 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도서관 수, 연면적, 좌석수를 나타내는 인프라 지표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 수치로는 강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실제적인 노인/어린이에 대한 인프라 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통합 인프라 지표 순위와 평균 연 소득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로는, 각 비교 대상의 상위 5위 지역구 중에서 총 2개 지역구가 동일한 반면 하위 5위개의 지역구 중에서 총 3개 지역구가 동일하여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앞서 살펴보

있던 인프라 지표에 어린이/노인의 인프라 지표를 더한 통합지표와 평균 연소득을 비교한 결과는 각 비교 대상에서 상위 5개 지역구 중에서 2개의 지역이 동일했고, 하위 5개 지역구에서는 3개의 지역이 동일하여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상관관계 수치와 실제적인 데이터 비교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했으며, 해당 결과에 대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본 연구의 상관관계 수치 분석에 있어 소득과 인프라의 상관관계 도출 과정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지역별 인문 사회적 환경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 도서관 총 예산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도서관 수가 개별 도서관에 분배되는 예산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소득이 도서관 예산 및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통합적 인프라의 수준이 높은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프라 또한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노인/어린이에 대한 인프라 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통합 도서관 인프라 지표와 노인, 어린이와 같은 약자를 위한 인프라 수준 지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제 인프라 지표의 상/하위 5순위와 노인, 어린이를 위한 인프라 지표의 상/하위 5순위를 비교했을 때, 각 비교대상의 상위 5순위가 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공공도서관의 통합적 인프라 수준과 약자에 대한 인프라 수준이 어느정도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통합적 인프라의 수준이 높은 공공도서관일수록 어린이,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프라 또한 비례하는 수치를 보이는 것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위치성, 그리고 계급의 문제에 관해, 공공도서관의 인프라와 해당 공공도서관이 위치한 지역구의 소득 간의 강력한 연관성을 파악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의 계급 문제 및 문화자본 재생산에 대한 영향력 및 위치성에 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소득과 공공도서관 인프라 간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단편적인 상관관계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등 추후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문화자본 및 계급의 재생산에 있어 공공도서관의 위치성에 관한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7. 참고자료

이승민(2018),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 기제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29(4).